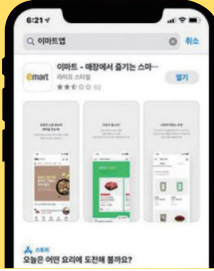




성가복지병원 소식지는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환경지에 공기를 잉크로 인쇄하였습니다.


이마트 모바일앱 영수증으로 성가복지병원 마일리지 적립(기부)하기~



STEP 01

앱스토어에서
**이마트 앱을 다운받고
회원가입 및 로그인**

이마트몰, 신세계앱 NO!
ONLY 이마트 앱만 가능



STEP 02

마이페이지
↓
이마트 하월곡점(변경)
↓
지역단체 마일리지(선택)
0057 사회복지법인 성가소비녀회

★ **이마트 모바일 앱**을 통해 성가복지병원 마일리지
적립(기부)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가복지병원 후원 계좌

국민은행	017-25-0001-379	신한은행	140-000-247209
우체국	013474-01-000253	우리은행	048-068235-01-015
신협	01168-12-000238	하나은행	289-810001-70404
농협	051-01-184347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성가소비녀회



2024년
발행처·성가복지병원

사회복지법인 성가소비녀회
성가복지병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무료병원





성가복지병원은
정부보조금 없이
성가소비녀회 수녀들의 십일조와
후원자들의 후원금,
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운영되는
무료병원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성가소비녀회 성가복지병원



Contents 2024



표지
—
이비인후과 윤성문 Dr.

발행년 2024년 | 발행처 성가복지병원
전화 02.940.1500
주소 02733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19(하월곡동)
홈페이지 www.sgbokji.or.kr

성가복지병원 소개

02 설립목적 · 운영방침 · 사업안내 · 운영방법 · 입원 및 외래진료

여는 글

05 품이 넓은 사람으로_ 병원장 김 필리아 수녀

09 바로 이 자리야_ 의무원장 강주원

강생의 자리

14 성가복지병원의 모든 분이 행복한 아침이기를..._

마이클(Michael)

18 알랑가 몰래_ 영상의학과 김수연(미카엘라)

20 성가복지병원에서의 '나'_ 영양과장 임정수(실비아)

나눔의 기쁨

24 구원의 닻_ 봉사자 김상훈(요한)

26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_

봉사자 정서연(마리스텔라)

29 나눔 이야기

감사의 마음

34 삶의 일부가 된 성가복지병원_

외래진료 봉사 나군호(마르시오)

36 봉사활동으로 치유받는 성가복지병원_

봉사자 이숙경(베로니카)

46 근속자 소감

성가 소식

알려드립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무료병원

성가복지병원



설립 목적

성가복지병원은 성가소비녀회의 영성과 사명을 실현하는 의료복지 기관으로서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치료하고 간호하여 한 가족을 이루며, 그들 안에서 하느님 사랑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운영 방침



성가소비녀회의 영성을 실현하는 의료복지 기관으로서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모든 의료서비스 (입원, 외래 등)는 무료로 한다.



성가소비녀회 수녀들의 지원과 후원자, 자원봉사자의 도움으로 운영된다.



사회심리적, 재활의 유기적 관계 형성과 전인 재활을 지향한다.

운영 현황

직원 현황

01

수도자,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치위생사, 영양사, 전기 및 기관 기사를 포함한 기본인력

자원봉사 활동 분야

02

- 의료지원(의사, 간호사, 약사, 물리치료사, 의무기록실, 치위생사)
- 이·미용/목욕/청소/세탁/재봉/안내/도서
- 무료 밥집(설거지, 배식, 청소)

지원

03

정부 지원 없이 정기 및 비정기 회원의 후원과 수도회 지원 현물 후원으로 운영

병상수

04

- 1병동
- 6층(13실, 33병상) : 말기환자, 중증·경증환자

진료과목

05

내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비뇨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산부인과, 피부과, 치과, 통증클리닉, 영상의학과

사업 안내

- 진료(입원, 외래)
- 말기 환자
- 타 기관 연계
- 무료 밥집(매주 화·목·토요일 점심)



입원 & 외래진료

■ 대상

차상위 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행려환자, 무의무탁자, 외국인 노동자, 북한이탈주민, 건강보험료 체납자 및 상실자, 말기 환자

■ 서류 준비

의사 소견서, CD복사(CT 또는 MRI 마지막 촬영본), 영상의학판독보고서
가족관계 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수급자 증명서 1부(수급자의 경우)

■ 선별 방법

1. 외래환자의 경우

위의 진료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사회사업과 담당자와 상담을 한 후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입원환자의 경우

사회사업과 담당자와 전화 상담이나 병원 방문을 통해 환자상태, 가정환경, 가족관계 등을 상담한 후 서류를 제출합니다.

■ 상담 시간

화~토요일 09:00~16:30 (일·월요일, 공휴일 휴무)

사회사업과 전화 02) 940-1561~3 / 팩스 02) 940-1535

■ 외래 진료시간

홈페이지(<https://www.sgbokji.or.kr>)에서 진료 일정을 출력해 보실 수 있습니다.



품이 넓은 사람으로...

병원장_ 김 필리아 수녀



2024년도 연피정을 하면서 하느님의 품을 묵상하게 되었는데, 사람으로서 제가 품을 수 있는 품과 하느님의 품이 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품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먼저 엄마와 아빠의 품, 가족의 품이 생각나면서 자연스럽게 미소가 얼굴에 번지게 되는 것은 이 단어의 뜻은 물론이고 제 마음 안에도 따뜻함과 다정함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는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고, 보이지 않으면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있고 보이지 않아도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나는 마음의 눈으로 보면 알게 되는 것들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다.” 이소연 산문집에 언급된 내용입니다. 마음이 있으면 말하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그렇게 서로를 마음의 눈으로 보고, 따뜻한 품으로 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병원과 함께하는 모든 분께 하느님의 따뜻한 품이 전해지도록 기도하며 글로써 안부 인사 전합니다.

성가복지병원도 벌써 올해로 35년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심장이 멈추기 전까지 따뜻한 품을 간직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물며 한 올 한 올의 사랑으로 35년을 엮어온 성가복지병원 역사의 산증인으로 이 시대의 희망이 되어준 후원자, 봉사자 그리고 성가복지병원의 사명을 실천하고 있는 직원들의 가슴은 하느님 사랑으로 채워졌기에 그 품은 더욱 따뜻하고 포근하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성가복지병원에서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직원 대상의 행사나 교육이 중단되었는데, 마스크 의무화가 권고 사항으로 변경되면서 계획한 일들을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정월 대보름날 직원 옷놀이 한마당을 진행하면서 맘껏 목청 돋우어 에너지를 발산하고, 5월에는 산과 호수와 정원이 있는 산정호수로 직원 야유회를 떠나 자연의 내음새를 담아왔습니다. 7월에는 예수고난회 명상의집에서 2차례의 직원 교육을 하며 성가복지병원 직원으로서의 자부심과 직원 체험담을 들으며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하였습니다. 병원이라는 긴장된 공간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각 부서의 업무에서 벗어나 서로서로 넉넉한 품이 되어 여유로움을 온몸으로 느끼고, 몸으로 호흡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코로나19가 사람들의 삶의 영역에 영향을 주었는데, 특히 경제 위축을 초래하면서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으며 그 상황의 심각성은

성가복지병원 후원자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또 다른 방법으로 계획을 하시리라고 믿었는데, 그것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안면이 있던 KBS2 방송국 피디로부터 ‘2장 1절’이라는 예능 프로그램 출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조금은 망설여지는 마음도 있었으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좀 더 많이 병원을 이용함으로써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으리라는 바람으로 촬영에 협조하게 되었습니다.

5월 1일 방송이 방영되고 난 후 홈페이지 접속이 마비될 정도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으며, 방송을 통해 무료 병원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는 격려와 감사의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의 걱정을 채워주시고, 늘 병원과 함께해 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또, 한 해 동안 직원들의 변동도 있었습니다. 2층 외래에서 10년 넘게 진료해준 2내과 박용건 과장의 퇴직으로 나중순 과장이 새로 부임하였습니다. 산부인과 전영은 수녀는 종신 서약 수련을 받기 위해 당분간 휴직하고, 장윤주 선생이 시간제 진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설과의 전기실도 채용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으나 젊고 활기 넘치는 김대철 기사가 병원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또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7월 19일 개원 34주년 감사미사를 봉헌하면서 코로나19로 힘들기도 했지만, 서로를 위한 배려의 마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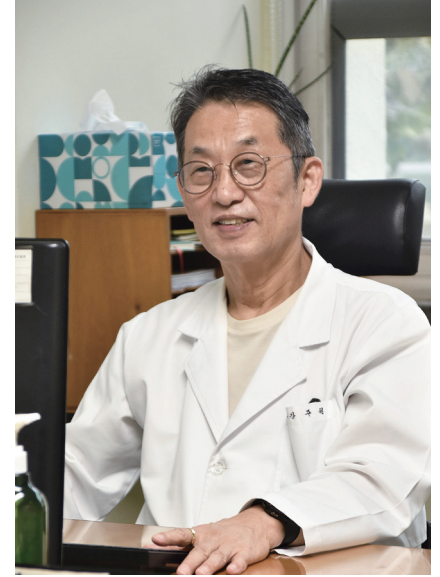
서로에게 따뜻한 품이 되어주고, 사랑이 되어주는 마음일 것입니다. “시물을 존재하는 그대로 보고, 고통과 슬픔에 공감하는 사람은 삶의 깊은 곳까지 다다를 수 있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글을 읽으면서 ‘그 사람은 품이 깊고 넓은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각각 사람의 얼굴에는 그 사람의 영혼이 그려져 있고, 정신이 그려져 있음을 안다고 합니다. 얼굴빛으로 건강함도, 기분이 좋고 나쁨도, 우울함도 들여다볼 수 있듯이 품이 따뜻한 사람의 얼굴빛은 따뜻하리라 생각합니다.

시대가 점점 각박하고 복잡하지만, 성가복지병원은 생명력 넘치는 병원으로 환자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 돌봄의 영성을 삶으로 녹여내기 위해 병원 곳곳에서 봉사하고 있는 봉사자들의 손길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어 봅니다. 하느님의 품을 닮아 온 마음으로 안아주고, 다독여 주고, 서로서로 배려하는 그런 성가복지병원이 되기를 기도하며, 저 역시 그러한 품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로 이 자리야...

의무원장_강주원(세례자요한)



성가복지병원이 설립된 지 34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가난하고 아픈 환자들을 성가복지병원을 다녀갔고, 지금도 많은 환자가 치료받고 있습니다. 환자들을 돌보고 치료하는데 있어 책임을 제대로 했는지 돌이켜보면, ‘글쎄?’라는 생각이 듭니다. 15년 전 처음 병원에 왔을 때는 순수한 봉사 정신으로 환자들을 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행적으로 일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영혼 없이 습관적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봉사자와 후원자의 진심 어린 마음을 옹기 받들고, 그들의 마음을 모아 환자들에게 최선을 다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 아쉽습니다. 또한, 성가복지병원 설립 취지에 맞게 환자들을 대했는지 생각해 보면 자신이 없습니다. 아픈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의료인의 책무이기에 열심히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론 성가복지병원에서 근무한다고 말하는 것이 요즘 들어서 쑥스럽게 느껴집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으나 행동으로 실천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지만, 타성에 젖어가는 진료는 환자들에게 마음의 상처만 더할 뿐입니다. 환자들과 아픔을 같이 나누고 어려움을 함께해 나갈 때 진정으로 우리는 성가복지병원에서 근무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원은 가난하고 외로운 이들을 치료하고, 간호하며,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설립되었기 때문입니다. 삶이 어려운 사람, 사회와 고립된 사람, 외국인 노동자 모두 우리의 친구이자 환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중요한 부분이며 바로 병원의 설립 목적을 충실히 따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마음가짐과 태도는 치료와 더불어 환자들에게도 큰 위로와 희망을 줄 것이라 믿습니다.

처음 병원에 왔을 때는 아픈 환자뿐만 아니라 술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환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제하거나 제지하는 안전 요원이 없었습니다. 수녀님과 직원들이 환자들을 달래고 안심시키며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며,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 현관에 들어서면 ‘저분이 주님이시다’라는 현판의 글이 보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깊이 뿌리내려 이 병원의 기운을 제어하고 계시는 듯 일반 병원에서는 볼 수 없는 상황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언제인가 상처에서 수많은 구더기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환자를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환자를 보는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한동안 말을 잊지 못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사회사업과 수녀님 그리고 직원들과 샤워실에서 한 마리씩 제거하던 일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시간 차이는 있지만, 3명의 환자에게서 똑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는 그들의 환경과 처지가 얼마나 열악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환자들을 돌보는 것은 단순한 의료 행위를 넘어, 그들의 삶이 개선되고 존엄성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일입니다.

우연히 왔다가 지금은 필연이 된 병원, 바로 이 자리야... 이제야 제 자리라 느껴집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조금씩 병원이 저에게, 제가 병원에 다가서면서 서로 일치하는 자리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하느님께서 지정해 주신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봉사자와 후원자의 진심 어린 마음을 환자들에게 전달하려는 노력은 분명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때로는 습관적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환자들에게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설립 초기의 일들을 몸소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지금까지의 경험과 헌신이 병원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큰 자부심을 느끼며, 직원과 환자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가복지병원은 경제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병원이 아니고, 후원자와 봉사자의 도움으로 운영하기에 환자들을 돌보며 병원을 유지해 나가는데 소수의 직원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후원자와 봉사자의 도움이 필수적이기에 항상 그들의 도움에 감사하며 그 마음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성가복지병원 기도문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저희 모두를 이 자리로 부르시어
성가복지병원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섬기도록
초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 만나는 주님의 모습은
저희가 기대하고 기다리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지만
하느님의 영이 저희를 도우시어
낮선 모습 속에 가려졌던 주님을 알아보는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저희의 발걸음과 손길, 눈빛과 말씨로
병드신 주님의 육신과 영혼을 돌보는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고 완성해 가는 사명으로
초대된 저희 공동체가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서로서로 돌보고 격려하며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어
성가복지병원을 찾아오시는 모든 이가
편안하고 아늑한 보금자리로 느낄 수 있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맞이하고, 만나고, 돌보는 저희가
창조주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파괴되는 지구를 되살리는 생명의 표징이 되는
따뜻하고 생명력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아멘.

† 성가복지병원의 주보이신 예수님, 마리아님, 요셉님!
• 당신들께 의탁하나이다.



강생(降生)의 자리

나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 이사 41, 10 -

성가복지병원의 모든 분이 행복한 아침이기를...

외래 환자 마이클(Michael)



2016년 성가복지병원을 처음 방문한 이후로 저는 수녀님과 의사, 간호사, 구급 대원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보여준 변함없는 헌신과 사랑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환대와 보살핌은 특별했고, 성가복지병원에 있는 모든 분이 사랑과 인내심 그리고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봉사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몇 년 동안 저는 복잡한 의료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이 성가복지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추천하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특히 C형 간염을 앓고 있는 환자가 있었는데, 그녀에게 꼭 필요한 약이 고가였기에 수녀님들은 그 약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 전화하며, 도와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심장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환자가 있었는데, 다른 시설에 연계하여 검사와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모습도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추천한 이들은 병원에서 받은 도움과 훌륭한 치료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성가복지병원에서 받은 친절, 전문성, 각 환자의 복지에 대한 진정한 관심은 많은 사람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 기회를 빌려 성가복지병원에서 하는 놀라운 일에 대해 관련된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으로 보살피며, 헌신하고 투신하는 모습은 지역사회에 진정한 축복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희망과 치유를 불러일으키리라 믿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섬기며, 고귀한 사명을 계속 이어 나가는 병원의 모든 분들에게 하느님께서 풍성한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따뜻한 마음과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Good morning to all the sisters at Holy Family Welfare Hospital.

Since my very first visit to Holy Family Welfare Hospital in 2016, I have been deeply touched by the unwavering dedication and compassion shown by the sisters, doctors, paramedic staff, and everyone involved. The care and hospitality I received were truly exceptional, and it was evident that each person was serving with love, patience, and a deep sense of responsibility.

Over the years, I have confidently recommended Holy Family Welfare Hospital to many others, including those facing complex medical challenges. In particular, I remember one patient suffering from Hepatitis C, for whom the sisters are working tirelessly to find a way to provide essential medication. Another patient, currently waiting for heart surgery, has also benefited from the care and support of your team. Without exception, every individual I've referred has expressed heartfelt appreciation for the excellent treatment they received. The kindness, professionalism, and genuine concern for each patient's well being have left a lasting impact on them.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express my deepest gratitude to all of you for the incredible work you continue 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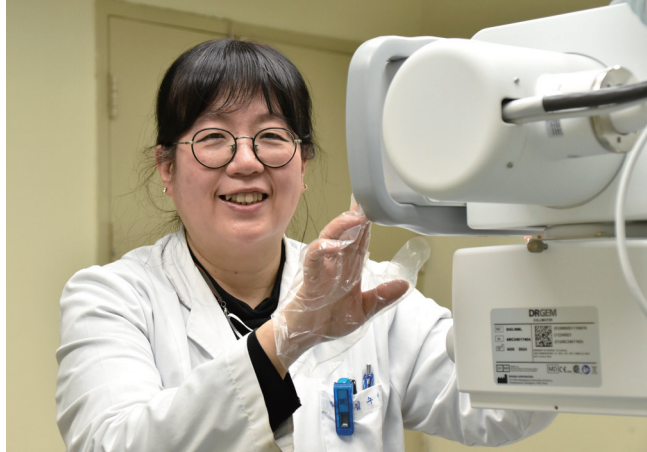
do every single day. Your selfless dedication and commitment to providing care with compassion are a true blessing to the community. You inspire hope and healing, and your efforts do not go unnoticed.

May God bless each of you abundantly as you continue your noble mission to serve those in need.

With warmest regards and heartfelt thanks,

Michael





알랑가 몰라!

영상의학과_ 김수연(미카엘라)

2003년 8월 1일 아침, 묘령의 여인이 현관문을 열며 설레고 있었다.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며 대문을 열고 마치 오랜만에 세상에 나온 듯 가슴 뛰며 버스 정류장으로 빠르게 향하고 있었다. 마음속으로 굳건하게 무엇인가 결심을 한 듯 144번 버스를 타고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었다. 그 목적지는 바로 성가복지병원이었다.

사랑하올 성가복지병원 가족 여러분 ~~~

저는 영상의학과에서 방사선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수연 미카엘라입니다. 글 처음에 나오는 묘령의 여인이 바로 접니다. 결혼생활 10년 동안 가정주부로 살다가 남편의 불치 질환과 사업의 실패로 갑자기 생활 가장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막막했습니다.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고 무언가 일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가정주부로 10년간 경력이 단절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처음엔 보건소 공공근로를 1개월간 하게 되었는데 우연히 성당 주보에서 성가복지병원 직원 모집 공고를 보게 되어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가족 중에 환자들이 있기에 오히려 병원에서의 8시간 근무 시간은 일을 하면서도 유일한 휴식이 되는 소중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곳은 수도회의 영성에 따라 세상의 흐름과는 반대가 되는 비영리기관이고, 정부의

지원 없이 후원자와 봉사자 그리고 직원과 수녀님들이 함께 운영하는 병원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료 진료인 것입니다. 다른 무료 나눔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진료비가 무료인 것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느낀 이곳의 직원들은 힘들어하면서도 얼굴엔 웃음이 가득하고, 기쁨과 활기가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역시 병원과 함께하는 그날부터 제2의 인생이 시작되었고, 매일의 기쁨과 슬픔, 그리고 어려웠던 순간들도 소중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환자들을 만나면서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촬영실 앞에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검사비가 얼마나? 나는 돈이 없어서 나중에 돈을 달라고 하면 나는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병원 검사비는 모두 무료라고 말씀드리면 그제야 방사선 촬영을 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너무나 다양한 모습의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존재였지만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예기치 않은 사건들로 일상이 무너지고, 가족과의 연락도 끊기고, 어디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어 가난하게 되고, 소외되며, 많은 어려움에 쌓여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환자가 나와 다르지 않은 똑같이 소중한 생명의 존재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나’라고 말합니다.

성서에도 주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치유하고 치료비를 받았다는 부분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료 진료는 바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 사랑의 치유가 성가복지병원에서 34년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자이크 그림의 조각처럼 중심에 있든 아니면 구석에 있든 그 어디에 있든지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임무를 열심히 하면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성가복지병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힘내세요.”

성가복지병원에서의 ‘나’

영양과장_ 임정수(실비아)



2001년 12월 성가복지병원에 면접 보러 온 날, 주방을 둘러보는데 지하에 있음에도 깔끔하고 환해 보였습니다. ‘아~ 여기 됐으면 좋겠다... 다니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바람대로 2002년 1월 27일부터 근무하기 시작해서 올해로 22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사하고 이틀 동안 (故)김성곤 의무 원장님 회진 때에 따라다니며 실습하였습니다. 진료과목이 외과라서 수술 환자가 많았는데, 수술 후에 환자들의 영양 관리에 대해 신신당부하였습니다. 박용건 내과 과장님도 당뇨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배불리 식사할 수 있도록 부탁하였는데, 제가 학생 때 임상영양학 강의 시간에 ‘환자는 식이요법, 약물요법, 운동요법이 필요하다’라고 배웠는데 이곳 의료진들이 당뇨 환자의 식이를 무시하고 무조건 환자들에게 풍족히 주라는 말씀에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문점은 외래에서 환자들과 상담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환자들의 대부분이 굶어 허기진 상태로 병원에 오기에 영양이 불량하여 일단 배고픔을 충족시킨 후에 식이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병원에 오는 환자들은 치료보다는 잠자리와 먹는 것이 더 시급하게 필요하기에 의사 선생님들도 의학적 치료보다는 그들의 허기진 욕구를 채워 준 후에 환자 상태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처방을 하는구나...’

의무 원장님은 이론적 의료 행위가 아닌 인간적·현실적 의료를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예전 중환자실에 ‘창일’이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자라면서 머리만 커지는 무뇌증의 아이였는데, 처음에 창일을 만났을 때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이런 아이도 있네! 의료적으로 힘든 상태인데도 의료진, 수녀님, 봉사자들의 많은 손길이 닿으니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일은 중환자실에서 8년을 지내다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는 환자들은 대체로 3~4개월, 길게는 1년 정도 입원해 있다가 선종하는데, 처

음에 이런 상황들을 부딪칠 때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신비야? 사람의 생명력이 참 길다. 이렇듯 영양공급만 해줘도 사람은 사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 3년이 걸렸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약간의 사명 의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식사를 담당하는 내 역할이 정말로 중요한 것 같다!’라고요.

성가복지병원에 입원하는 환자 대부분은 보호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음식이 있으면 가능한 대로 식재료를 구매하여 준비하는데, 병동에 배식하기 직전에 선종하였다는 연락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생전에 원했던 음식을 입에 대지도 못했을 때는 무척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 참, 죽음은 기다려 주지 않네... 다음부터는 최대한 빨리해야겠다.’라고 다짐해 봅니다.

우리 환자들이 다른 병원과 다른 점이 있다면 성가복지병원은 ‘집’과 같은 곳이기에 직원들은 환자들에

게 ‘가족’의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양과 직원들은 최대한 집밥과 같은 맛을 내기 위해 된장과 국간장, 모든 김치류를 직접 담급니다. 입사하고 2년 동안 호스피스 병동에서 환자들을 만나보면, 조미료를 넣은 국은 속이 메스꺼워 먹는 데에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어 2005년부터 지금까지 화학조미료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육수는 멸치, 다시마, 건새우, 무, 양파, 파뿌리 등으로 조리하기 시작하고, 직접 담근 된장, 국간장 등으로 간을 맞추었습니다. 매년 음력 정월에는 병원 옥상에서 영양과 직원들과 함께 허리춤 되는 향아리에 된장을 만들어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넷째 주 정도에 강원도 화천에서 직접 키운 배추를 기증하는 후원자의 연락을 받으면 그해 김장이 시작됩니다. 수녀님들과 시설과, 영양과 직원 5~8명이 직접 배추를 뽑아 가지고 와서 국내산 양념(고춧가루, 마늘, 생강, 젓갈류

등)으로 집에서 김장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김치를 담급니다. 병원에서 김장하고 된장, 간장을 담가 식사를 준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인건비 상승으로 인력도 부족하지만, 각 가정에서 김치와 장을 만들지 않기에 그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환경 공해가 심해지면서 향아리에 담은 장을 관리하기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가복지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의 특성상 이곳은 그들의 ‘집’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직접 조리해서 ‘집밥’처럼 음식을 제공해 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이 언제까지 지속할지 모르지만, 주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라면, 계속 도와주시리라 믿으며 영양과 식구들은 매일매일 환자들과 직원들의 식사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눔의 기쁨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 이사 43, 4 -

구원의 닻

6병동 청소 봉사_길상훈(요한)

성가복지병원과의 인연이 어느덧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제가 소속된 돈암동성당 레지오 ‘신자들의 도움 pr’ 단원들의 얼굴 또한 세월의 흔적으로 눈가의 주름이 다소 늘었습니다. 해를 거듭한 단원들의 봉사활동 영역은 병실 청소로부터 시작하여 마음의 영역까지 점점 기쁨과 젊음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20여 년, 레지오 활동을 통해 병원에 봉사할 기회가 주어져 작은 봉사로 시작했던 것이 이제는 매월 넷째 주 주일 봉사를 기다리는 감사함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걷지 못하며, 죽어가는 누군가의 애잔한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원들 모두 같은 날, 같은 시각에 함께 봉사하



며 이러한 기적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기도하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기도가 힘이 되어 개인의 성화와 함께 성숙해 가는 단원의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더불어 공동체 안에서도 아주 기초적인 영성의 변모를 목격하고는 서로 놀라워하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병원 봉사활동을 통해 변화되는 레지오 단원들을 보며, 돈암동성당 내에서도 공동체들의 관심과 활동과 정을 서로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행

복한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그 누구도 나와 상관없는 사람은 없으며, 나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께 의탁하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봉사 안에서 더 큰 사랑으로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이고 그 믿음이 삶의 지름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가복지병원 봉사활동을 통해 우리 단원들의 영성이 풍성해지고, 궁지 또한 더욱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병원을 운영하는 ‘성가소비녀회’ 수도회의 ‘작은 여종’이라는 이름에 담긴 영성에 경탄합니다. 수녀님들의 소리 없이, 소문 없이 수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더욱 깊어져야 한다는 것을 되새기곤 합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수많은 자원봉사자의 헌신과 사랑에 깊이 머리 숙입니다.

현시대의 인공지능이 발전하여 인간의 많은 일을 대신하는 편한 세상이라 하지만 아무리 좋은 세상이

라도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만나고, 서로 도우며,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복음의 자리가 바로 성가복지병원이라 여기며 더 나아가 우리 공동체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에서 그 길을 찾습니다.

성가복지병원 병동 환자들과 자원봉사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들 곁에 계신다는 믿음을 잃지 말고, 그분께서 확고한 ‘구원의 닻’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또한 언제나 성가복지병원 그들과 함께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무료 밥집 봉사_ 정서연(마리스텔라)



동하고 있는 레지오 마리에입니다. 성모님의 군대로서 성모님의 지휘 아래 기도와 봉사를 하며, 단원들의 성화를 통해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제가 평화의 모후 꾸리아의 단체장을 맡기 전, 단체 소속의 두 팀 정도만 정기적으로 봉사를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즈음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든 활동은 중단되었습니다. 미사도 방송을 통해서 또는 인원을 제한해서 참례할 수 있게 되었고, 당연히 레지오 마리에 단원이 라면 매주 꼭 참석해야 하는 주 회합도 처음으로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단원 모두는 처음 접하는 상황이고 정말 나라 전체가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때, 저는 단장으로서 가만히 지켜만 보고는 있을 수 없었습

저희는 명동성당 평신도 사도직 단체이고, 35~49세의 단원들이 활

니다. 저희는 화상 회합을 시도하였고, 적응되어 점차 활기를 찾아가는 때 자원봉사자센터 담당 수녀님으로부터 봉사를 다시 할 수 있으니 연락 기다린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고 수녀님과의 연락을 통해 쉼터 무료 밥집에서 매월 넷째 주에 봉사하기로 정했습니다. 특정해서 몇 팀만이 아닌 단체에 소속된 모든 단원이 함께하기를 바라며, ‘명동성당 레지오 마리에’의 이름으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단원들이 얼마나 참여할지가 걱정이 되었으나 4~5명의 봉사자로 시작했던 봉사활동에 이제는 6~7명이 고정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봉사를 함께 하며 느끼는 저희 단원들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 그분 자녀들을 위해 일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심에 힘들기보다는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기억되는

시간이었습니다.(김진영 세실리아)

- 식사 한 끼로 기쁨과 감사를 전달하는 환자들을 보며 함께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였고, 여럿이 함께하면 나의 미약한 힘도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박고현 아셀라)

- 토요일 이른 아침, 늦게까지 쉬고 싶지만 제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봉사한다는 건 값지고 소중한 일입니다. 신앙인으로서, 누군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감사하고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서민석 로마누스)

- 게으름은 한 번 견디어 넘어서면 정말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걸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김민숙 루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되었고, 이러한 마음들을 여러 사람이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 저의 대녀들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계도 참여를 권하고 있습니다. 함



게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발 맞춰 준 다른 봉사자들에게 감사하고, 무엇보다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느님과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성모님께 그리고 뒤에서 여러모로 챙겨주시는 수녀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이란,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바라는 것도 둘을 주고 하나를 바라는 것도 아닌. 아홉을 주고도 미처 주지 못한 하나를 안타까워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사랑을 실천하다가 균형을 잃어 흔들릴 때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더 큰 사랑을 찾게 되는 게 아닐까요? 늘 사랑 안에 머무르며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감사하며 기도하는 봉사자가 되도록 나아가겠습니다.

나눔 이야기



2월 6일_성북구 여성단체연합회 '사랑의 떡' 후원



2월 8일 익명의 후원자 '손녀가 모은 후원금'



3월 12일_명동대성당 '천사가 되어 주세요' (1000원의 사랑 실천)성금 전달



4월 6일_전국여성법무사회 쌀 후원



6월 20일_ 농협은행 길음역지점
사랑의 기부금 전달



6월 21일_ 경기북부지방법무사회 기부금 전달



7월 20일_ 34주년 선물 나눔 행사



11월 21일_ 서울남서로타리클럽 라면 후원



11월 28일_ 석교상사 '사랑나눔 골프대회'
이승엽야구장학재단 기부금 전달식



11월 30일_ 외손녀 백일기념 떡 후원



12월 17일_ (재)새암조감제
배추김치, 석박지 후원



12월 20일_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
기부금 전달

희망브리지 의료기기 지원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희망이 되어 준 전국재해구호협회 희망브리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면역 분석기
MINI VIDAS



엑스레이
DRGEM



생화학 분석기
HITACHI7020



전자동 정제분류 포장시스템
JVM



감사의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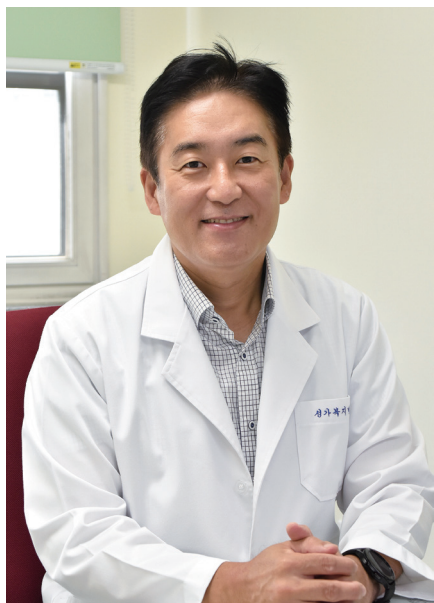
우리는 하느님께 피어오르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 2022년 2월 15일 -

삶의 일부가 된 성가복지병원

외래진료 봉사(비뇨의학과)_ 나균호(마르시오)

안녕하세요. 1998년부터 지금까지 성가복지병원 자원봉사 의사로서 비뇨의학과 환자들을 진료하며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전문의 과정을 마치고 군 복무



했던 국군수도병원 군의관 시절에 동료 군의관의 소개로 성가복지병원을 알게 되었고,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졸업했던 연세대학교가 항상 기도로 모든 일을 시작했던 미션스쿨이기에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봉사하는 것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어느덧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초창기만 해도 많은 환자가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다른 봉사 의료 기관들이 생겨나면서 이전만큼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이제는 외국인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세상의 변화를 실감하게 됩니다.

제가 주로 하는 일은 비뇨의학과를 방문하는 환자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필요한 약물을 처방하는 것입니다. 환자와 만나는 시간이 비록 짧은 것은 하지만,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어

주는 말을 한마디라도 더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봉사하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의료는 지식뿐만 아니라 환자들과의 관계 역시도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성가복지병원 봉사를 통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환자들의 대부분이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어서,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무엇보다 먼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료에 앞서 나름대로 친절하고 따뜻한 태도로 환자들을 대하려고 노력합니다.

때로는 힘든 순간도 있지만, 환자들의 미소와 감사 인사를 받을 때마다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봉사 활동을 하면서 무엇보다 감사했던 일은 2018년에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많은 시간 동안 수녀님들과 함께 생활하였지만, 한 번도 세례를 강요받은

적이 없었는데, 때가 되니 자연스럽게 제 마음 안에 하느님을 받아들이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도 신기하기만 합니다.

제가 환자들을 위해 봉사한다는 생각보다는 성가복지병원 봉사 활동을 통해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고, 제가 받은 만큼 사회에 다시 기여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깨닫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료봉사 활동을 하면서 조금이나마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제 이력 중의 26년이라는 가장 오랜 시간이고, 가장 보람되고, 가장 소중한 기회를 주신 성가복지병원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봉사활동’으로도 치유받는 성가복지병원

의무기록실 봉사_ 이숙경(베로니카)

팬찮아지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관심과 친절함, 이 모든 것은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4년 전에 어머니가 85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 3년 전 뇌에 물이 찬다는 진단을 받고 갈수록 안좋아지는 가운데, 특이한 관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력이 전혀 없어 오늘 내일 하다가도, 따뜻한 샤워를 해드리면 다시 생기가 살아났고, 그 기세로 휠체어에 고개를 가누며 앉아 있을 수 있고, 손님들과 함께 테이블에서 대화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은 생명이다.’라는 말을 들었지만 정말 그렇다는 경험과 새로운 사람들로 부터의 관심과 친절함을 받으면서 잠시

제 예전의 삶은, 자아실현이 삶의 모든 것인 것처럼 살았던 것 같습니다. 글로벌 기업체의 경영기법을 떠받들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것처럼 여겼고, 바쁘게 일하며 살면서 가족은 언제나 우선순위 밖이었습니다. 그런 생활의 끝은 불면증이었고 나의 정체성으로 여기던 회사 생활을 결국은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신앙생활과 여유를 찾은 생활 리듬으로 불면증은 저절로 치유되었는데, 10년간 친정 부모,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가 각각 2년 간격으로

아프게 되면서 처음으로 가족들을 제대로 돌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 회사 생활에 계속 집중하였다면 부모님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도 방치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가족의 떠남을 계속 겪으며 호스피스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가복지병원과는 6년 전 호스피스 봉사로 인연을 맺었고, 2020년 코로나로 봉사가 중단된 후 2022년에 새롭게 의무기록실 수요일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비대면의 시대가 끝나고 대면의 시대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비대면의 시대에 우리는 집 밖을 나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회의하고, 사람을 만나고, 강의를 들으며 지냈습니다. 인터넷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을 듯 했지만, 통계 결과는 우울증의 증가가 뚜렷했습니다. 우리는 바깥의 어느 곳에서의 일을 위해 옷을 가다듬고 나갈 준비를 하며 집 밖을 나갑니다. 걸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보고, 밖의 공기를 마시고, 나무와 새와 하늘과 땅을 구경하면서 교통수단을 통해 목적지를 갑니다. 가서는 직접 누군가와 만납니다. 상호 간의 일을 만나면서 대개 이루어집니다. 설득이 이

루어지고, 마음이 교감 되고, 감동이 일어나고, 인터넷 만남으로는 이해되기 힘들었던 언어 이상의 미세한 표현들이 오갑니다. 집에서 나와 걷고, 하늘을 보고, 어디를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 그 모든 것이 치유였는지 모릅니다.

성가복지병원 외래환자들은 이곳에 오기까지, 더 큰 노력을 하였을 것입니다. 어딘가 편치 않은 몸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여 힘들게 왔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병원에서 첫 대면으로 만나게 되는 접수의 순간에, 기계적이거나 사무적이 아닌 친근한 환대로 맞이하고 싶은데, 표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환자들이 병원의 의료진들과 좋은 만남을 통해 몸과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서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짧은 순간이나마 기도드립니다.

환자들은 진료를 받고, 어느 날은 점심을 먹을 수 있고, 빵을 받아 가기도 하고, 가끔은 선물도 받고, 사회사업과 수녀님들이 치료를 위해 큰 병원으로 안내해 드리기도 하고, 다른 공동체들과의 연

계를 모색해서 돕기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가복지병원의 이름에 굳이 '복지'라는 단어가 들어간 이유를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몸과 마음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몸과 마음을 같이 돌보려는 정신을 어렵פות이 느낍니다.

이 병원은 수녀님들도 함께 운영하고 있어, 수도원의 분위기도 납니다. 여기 오는 사람들은 마치 수도원 방문을 잠깐 이나마 하고 가는 하루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원장 수녀님이 1층에서 안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는데 겸손과 스스로 낮아짐을 실천하는 모습이 감동이었습니 다.

외래환자들의 경우 이제는 외국인이 꽤 많습니다. 그들의 국적은 전 세계 거의 모든 가난한 나라들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오는 환자들이 많음에 놀랍니다. 그 멀리까지 우리가 섬기러 가는 대신 이렇게 우리나라로 와주었고, 성가복지병원이 마치 등대가 되어 모이게 했으니, 그들을 만나는 이 기회를 소중히 여겨서 주님 안에 한 형제임을 서로가 느끼도록 섬기면 좋겠습니다. 영어로도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서로가 답답하지만, '오죽하면 여기까지 왔을까?' 싶은 그 노고를 생각하며 몸짓과 번역기를 동원하여 어떻게든 소통하여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들을 진료하는 의사 선생님들도 더욱 존경하게 됩니다.

성가복지병원은 환자들의 치유만이 아니라 '봉사자'라는 이름으로 오는 저 같은 사람의 치유도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히 무료인 성가복지병원을 체험하는 자체가 저에게 힐링이며 감사한 시간입니다. 여기는 더 많은 환자를 받아서 더 많은 수입을 올려야 하는 목적이 아예 없는 곳이기에 다른 곳들과는 다른 그 무엇이 있습니다. 사기업 병원들의 화려한 외관과 달리 소박하고 조용한 이곳은 1층에 들어섰을 때 환하고 정갈한 모습을 보며 정신적인 여유 또한 느끼게 합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세상과 분리되어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 공간은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발에 숨겨진 보물 같습니다. 이런 곳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다는 자체와 봉사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차창일 의사선생님과 아쉬운 이별



성가복지병원과 인연을 맺고
설렘으로 시작한 이비인후과 봉사 진료!

25년 9개월의 시간을 끝으로

지난 12월 21일 아쉬운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랑의 진료 봉사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차창일 선생님을 기억하며 따뜻한 사랑 잊지 않겠습니다.



병원 소식

1월

1월 2일_ 시무식



새로운 날을
비추어 주심에 감사하며,
서로에게 희망과 축복의
인사를 건네는
시간이었습니다.



2024



2월

2월 11일_ 세계 병자의 날

QUIZ TIME

WORLD DAY of the SICK 11th

월 11일은
'세계 병자의 날'이다.

① 1월 January ② 2월 February ③ 5월 May ④ 11월 November

On May 13, 1992, Pope John Paul II established _____ 11, the anniversary of Lourdes' blessed Virgin Mary, as "World Day of the sick" to remember those suffering from illness and to encourage medical professionals.

1992년 5월 13일,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질병에 시달리는 이들을 기억하고 의료인을

퀴즈 경품 추첨!
푸짐한 선물 전달!



2월 23일_ 직원 윷놀이



함께
신명나게 웃으며,
행복한 에너지를
나누었습니다.



3월 부활 선물 나눔



5월

5월 1일_
KBS2TV '2장1절' 예능 프로그램에
성가복지병원이 소개되었습니다.



5월_ '성모의 밤'



5월 5일_
가톨릭 신문에 성가복지병원, 송곡중 환경동아리 '파란 나비'의
자원순환 활동이 소개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구 지킴이”



5월 12일_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생태네트워크 축제가
성가복지병원에서
열렸습니다.

5월 13일_
직원 야유회
(산정호수)



7월

개원 34주년 미사



Work Anniversary

김종화 영양과

입사지원서를 작성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가복지병원에 면접 온 날이 었그제 같은데,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 습니다. 직원들과 특히 환자들의 식사를 준비한다는 것에 대한 책임 내지는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던 봉사자들의 손길이 코로나 19로 끊어 지면서 그들의 노고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5년이 라는 기간 동안 수녀님, 직원들, 봉사자들과 함께하면서 배우고, 느낄 수 있었던 모든 것에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5년
근속상



10년
근속상



Work Anniversary

이강희 6병동

제 삶의 여정에 성가복지병원이 있었고, 앞으로도 함께 한다는 것이 참으 로 고마운 일입니다. 일상에서 쉽게 만날 수 없는 상황과 이야기를 가진 환 자들을 간호하고,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만나면서, 단지 간호사로서의 직무 를 넘어 그동안 당연한 것으로 누리고 살던 아주 사소한 것들이 얼마나 감 사한 것인지 수시로 확인하면서 지내온 시간입니다. 10년이라는 길면 길다 고 할 수 있는 시간 동안 제 삶의 버팀목이 되어준 병동 식구들, 병원 직원 들과 봉사자, 주위의 많은 분께 감사드립니다.

5년
근속상



Work Anniversary

이정미 6병동

성가복지병원에서 근무하게 되어 감사하고 행복 합니다. 적응하느라 어려웠던 시간도 있었지만, 옆에서 힘이 되어주신 병동 식구들, 그리고 모든 직원과 수녀님 덕분에 지금까지 함께 할 수 있었 습니다. 앞으로의 시간도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동안 좀 더 마음 편하게 치료받고, 그들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의료인이 되기를 다짐해 봅니다.

9월



JMJ
(예수마리아요셉회)
회원 방문

JMJ는
성가소비녀회 강생의 영성을
함께 살아가는
평신도 협력단체입니다.



11월



저자와
함께하는
'꿀비 북토크'

11월 1일_
성가복지병원 [쉼터; GAIA]에서
'기후돌봄' 저자 한윤정 작가님과 함께하는
북토크가 열렸습니다.



11월 6일_
직원 성지순례(남한산성)



12월



12월 14일~15일
사당5동 성당 후원자 모집



12월 18일
이지스자산운용 후원처 방문

[이지스자산운용]은
성가복지병원 환자들의
치과 진료를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기부해 주는 후원처입니다.
성탄을 맞아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MERRY
CHRISTMAS



영훈초등학교
친구들의
성탄 공연



2024년 우수 자원봉사자 배지 수여식

자원봉사자센터에서
지난 12월 14일 우수 자원봉사자 감사미사와
배지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골드
1,000시간

김은희 외래

실버 500시간

김기순 외래
김은옥 밥집
류재환 의료
박선아 의무
박혜진 밥집
신금분 밥집
오요셉 밥집
이은자 치과
이하옥 외래
전계선 병동목욕
정옥희 밥집
하순분 병동목욕
황규창 병동청소

그린 200시간

권한준 밥집	이지연 의무
김나윤 의무	정동선 밥집
김성수 밥집	정석연 병동이미용
김안나 약국	조현자 영상의학
김한이 외래	주미숙 외래
명경민 약국	
박경림 밥집	
변영수 목욕안내	
신현자 영상의학	
오태경 약국	
이동훈 밥집	
이봉숙 치과	
이승훈 의료	



순교자들의 모후
쁘레시디움

매주 주일 새벽
병원 1층 전체
청소 봉사



하루 하루 귀한 시간들을 기쁨으로 봉헌해 주신
봉사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4 물품 후원자

쌀, 식재료 외 JMJ 강영자 강주원 강현진 개성한우 고)최영환 환자보호자 고재영 고희순 굿월스토어 길음2동 주민센터 길음동성당 김미순 김성지 김세연 김수연 김승연 김용승 김인득 김중오 김종화 김진성 김필리아sr 나폴레옹 대전떡방앗간 통일방앗간 들꽃침터교회(김종곤목사) 박계형 박소은 박아나다시아sr 박중우환자 보호자 박진성 사랑터 산곡중 상록마을(지우람) 서울남부지방 법무사회 서울남서로타리클럽 성곡수산 성북구청 여성가족과 손병구 신양호 안재용 양휘자	여성법무사회 오피마인드(김인숙) 외국인성당 부인회 우영개발 유진유통 윤희정 이강희 이금숙 이미용 이벨라지아 이상봉 이선형 이정미 이정희 이해란 이해영 인덕원삼천사복지재단 임정수 전지사 정릉4동빈센시오회 정명약품 정은미 정준희 정현우 외 종암동 주민센터 (주)정명약품 (재)새암조감제 정현우 외 불교신자 중림동약현성당 중림축산 쪽방상담센터 청년문간 친절떡방(우종순) 크레센도우 푸드뱅크 프란치스코의 집 하삼바오로의집 한강성당 한국사랑나눔공동체	성북구외국인노동자센터 이장훈 장해숙 조정자 ㈜엠티엑스 ㈜제이아이씨글로벌 차명숙 차유정 황영동
	생활 용품 김윤아 김진성 더벨지움(김찬술) 백채원 백승우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수약국 영훈초등학교 아름다운나눔 윤정순 이장훈 이형순 정릉4동빈센시오회 (주)태창산업	
	의료용품 외 의료용품 외 고은숙 김선희 미키엘 백지혜 전진 (주)극동메디칼 (주)대합성의료기 (주)태창산업	
	재능기부 영훈초등학교 돈암동성당 썬투스 챔버오케스트라	

2024 신규 후원자 명단

김정겸	이순희	안지연	황시윤	김혜선
이지오	허여라	최정숙	원혜란	김지연
최수현	김금순	김수경	이학문	정다유
김정현	이영준	김지은	신연주	장용서
김한수	유복순	이성원	황인수	유슬기
노용찬	김호준	유미라	이경민	황길순
이해연	김숙영	문상우	배지현	안상모
양진열	유재훈	조은임	신경민	윤보영
이혜영	황치문	문종승	허영은	김현기
윤정석	윤정희	강현진	고덕문	김동은
강민성	이자영	김선정	김현우	김정미
도윤구	김민섭	남유주	이인곤	송아련
김찬술	허정애	김현모	이지윤	정연정
이윤희	김정자	한나경	김대성	이장훈
권대원	김형규	최현숙	최지송	김아롱
전은미	김정웅	최수명	유가람	임경채
송은실	손주영	정효빈	박도예	세무법인라인서교지사
박민지	김현수	김진희	최은지	이순남
조상호	원지원	이주영	송정희	정성희
조정임	박기준	김아름	한유준	이태영
최한별	송형준	김은솔	장수환	권대건
안영주	조성민	현미애	송가혜	허혜림
박혜인	백관륜	유경아	강민성	장기춘
김은영	한은실	임영미	양경민	김선영

2024 신규 후원자 명단

권정희	남궁호	우지연	신윤도	안준범
이경선	홍광현(디슈룹)	이기성	차주태	임진숙
김다희	김주희	이지영	윤한슬	서익자
한정연	신경재	송지훈	조석현	변경순
양미란	윤영숙	권진영	박선명	김순성
이정임	이민아	경세윤	이정현	문미라
박지인	이미란	김진현	조윤서	한귀순
김주애	유지희	김정국	황종현	최은영
정송희	한인애	정인아	유정우	권유경
홍옥선	문옥녀	김은혜	김점수	이부희
홍향아	정광남	나지인	이혜윤	김연주
박진영	이채원	하상희	이은상	심효순
민하영	안성근	곽주연	최종훈	유은희
최윤금	차봉이	서민택	박지영	이다인
김현곤	류정민	김태훈	방혜은	장현숙
김동일	이수연	남정우	이세례	박지은
안나리	심효진	이명재	김지원	피성진
이동준	김현	김한오	천민음	정재영
전수정	김보민	이채영	조태수	이광욱
김현정	석춘지	조기연	박선미	표민경
문선영	이민형	김양희	김영찬	이덕희
김은숙	박남희	김종혁	김이배	유혜미
박서영	송인철	고진상	전일곤	임지영
김선애	우예나	서정순	백기영	김성문

윤지혜	변학렬	이지연	강수진	최지현
김주령	신용숙	정숙희	정형순	서수연
최은경	정풍용	고정은	김상길	김상범
정보연	최치호	김형선	배상기	심상임
김자은	박원태	박은지	조창표	현봉길
황은희	이영주	조규상	이현주	현진호
김윤종	김상국	이지원	윤인자	홍진혁
김효정	최한규	이연수	박교민	김심동
박지희	정지숙	이재영	봉주연	박지민
김초롱	곽윤영	신미연	이희두	조용이
이슬기	김태종	김진기	권진명	송혜진
이희원	서다은	김은영	문정민	이의경
황금희	이아라	임혜미	양준호	김희준
이현희	정소예	오철	이희환	이연남
정고운	김송이	남재윤	김상철	에이스테크노
여인희	김지현	조세희	신정화	정윤선
김선순	윤진희	박형근	강점순	황숙이
배연숙	박선하	김미진	고지원	김이솔
이지현	도상목	안명옥	박용목	박혜정
홍영자	강현우	은자영	이정숙	양향순
김경례	김영주	양서현	김민경	이세진
임명임	이현주	정지향	김혜진	김혜란
김덕념	김혜민	이용익	서소현	문규철
김복순	김민수	이민자	오동현	최진혁

2024 신규 후원자 명단

진영극	차재희	이정섭	(주)에스와이엠헬스케어	박수진
전대웅	이정은	오유정	이진희	(주)유엔에이치
김영희	박경원	정연진	성시연	정창준
정여진	박희정	김대섭	민금순	김하나
강대진	이서연	이승영	정서윤	김은희
조종규	최예지	정소연	나윤주	김연중
임정석	황현희	김애경	이해량	윤선영
문정남	강우영	황혜지	박승순	이주현
이숙자	고상우	조인영	오채현	김승원
박은정	공현숙	장은희	서진희	이미숙
남현욱	김경희	서희진	정인신	이인수
안경분	조병우	임지원	이보라	김미경
신광용	이유진	손상웅	홍지현	김민
박홍희	박근익	박현실	유현선 에스엠천사	성힘찬이
이영호	박근영	김신혜	안지형	김여진
장철희	황봉주	박난영	올바른 한의원	김여주
이민규	송지원	박영화	(주)파마시아엔스코리아	안길환
(주)한미인테리어	임재숙	김남희	이상훈	디자인담결
노윤재	이솔	정혜련	서숙현	홍영의
최상문	이승기	노동영	김경자	김영미
정진필	구정희	이정현	심희규	장윤찬
김혜나	정은정	장성진	이종현	서유빈
박지연	(주) 위튼컴퍼니	김인균	이창석	박주연
김미선	장용문	김빛나	박창호	심민영

정연숙	신헌춘	HIENGLISHK	김선구	이재현
이경미	안희용	김선주	김선숙	이효정
이영희	이병일	조익선	김소영	장경식
문미영	문혜진	한은정	김순희	장지오
성기범	주민정	박남선	김용태	전흥기
김남희	권용규	김내환	김유식	조영빈
양승미	이양섭	윤승재	김인수	주경희
최청자	정경애	임세진	김정숙	차효순
김태미	배인숙	김문기	김정영	최용희
양덕실	신화춘	차서우	김춘겸	최정순
이영옥	지선애	시아로(원경아)	김혜경	최형숙
김금순	박경애	최근화	류기봉	한경희
김선민	최준희	원우식	문윤숙	한계주
성원자	노유정	이인하	박정호	한진화
김진열	김성준	안우진	백덕현	허기희
이효섭	김동현	한채하	서순님	황정호
김진성	안상희	강임호	신세분	
한미사	박지승	구교령	안영수	
김지승	김문희	권광선	안정숙	
신혜경	김미림	권회련	염현순	
박기범	이종칠	김대현	유재선	
안동환	이연승	김덕희	이귀분	
권효신	박승철	김미배	이기원	
이진순	진현수	김미자	이영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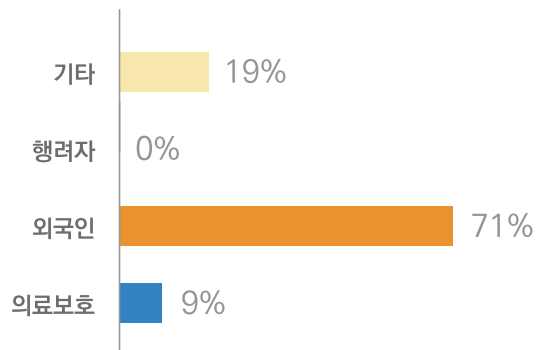
알려드립니다

2023년 환자 진료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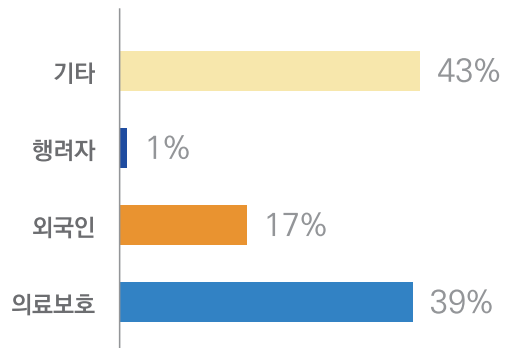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기간	외래진료			입원 (연인원)	병동 사망자
	초진	재진	계		
2023년	1,256	28,581	29,837	4,067	32
1990~2023년	31,389	654,803	684,936	702,300	3,3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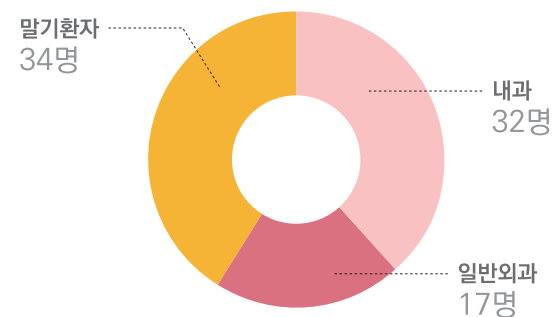
외래 신환 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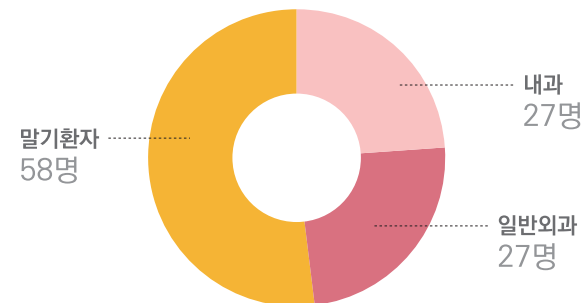
퇴원 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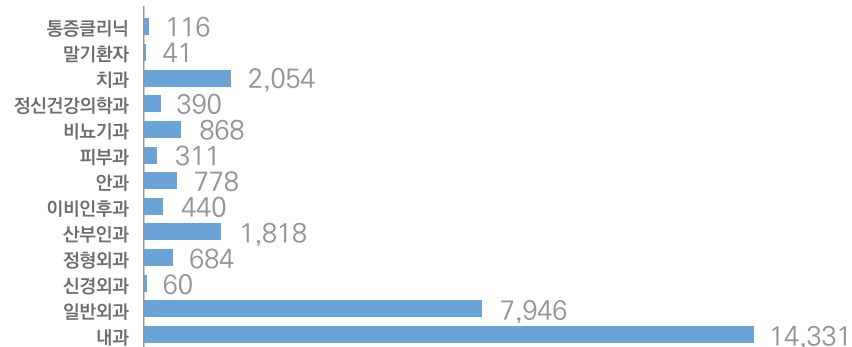
입원환자 과별 인원 통계



퇴원환자 과별 인원 통계



외래 환자 과별 인원 통계





성가복지병원의 추억이 담긴 글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 식 시, 수필

분 량 A4 2장 이내(글자 크기 10포인트)

이메일 bobinhuwon502@hanmail.net

우 편 02733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191(하월곡동)
성가복지병원 후원회

- 연락처 또는 E-mail 주소를 함께 보내주세요.
- 당첨되신 분께는 개별 연락 후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봉사 신청 안내

홈페이지 봉사자 모집 게시판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봉사자 모집을
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인들을 위한 미사 & 기도 봉헌

후원자, 봉사자를 위해 매월 첫째 주 토요일 미사 봉헌과
매일 아침 · 저녁기도 시간에 기도로 봉헌하고 있습니다.

물품 후원/ 헌옷 기부

후원회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02)940-1501, 1502 (일 · 월요일, 공휴일 휴무)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기부금 영수증(소득공제 영수증)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나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국세청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주소 & 연락처 변경

홈페이지 게시판, E-mail을 통해 변경된 사항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반송되는 우편물이 많습니다.)

후원회 E-mail bobinhuwon502@daum.net

병원 소식 보기

홈페이지 <https://www.sgbokji.or.kr>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sgbokji_



2023 후원금(물품)내역 및 사용결과보고

(단위 : 천원)

수입		지출	
구분	금액	구분	금액
법인 보조(후원금)	3,352,850	사업비	670,152
기부 물품 (약품, 의료소모품, 급식재료, 의료기기, 소모품 외)	172,395	인건비	2,364,929
		관리운영비	321,439
		재산유지조성비	135,227
기타 수입	602,345	기타	635,843
계	4,127,590	계	4,127,590

후원 신청 안내

www.sgbokji.or.kr (온라인, 자동이체 신청)

성가복지병원



→ 후원 안내 (후원 신청)



일시 후원

일시 후원을 원하시는 경우 뒷면 계좌번호를 참조해 주세요.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후원회로 연락주세요.

후원회 사무실

문의 Tel. 02) 940-1501, 1502